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예레미아서 31: 31-33 [흠정역]

31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33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舊約: Old Testament)은 ‘옛 언약’이라는 뜻으로서 창조의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적용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또는 약속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며, 신약(新約: New Testament)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온 인류에 적용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언약이란 계약과 같이 어떤 이해관계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인들과 법인들 간에 글로 씌어진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서명한 계약 당사자들은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피차 추구하는 이해관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의 규정, 당사자들의 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조항, 그리고 계약의 효력 기간과 파기 조건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성문화된 계약과 비성문 계약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계약과 언약의 관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도 이러한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홍수 후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아랍의 여러 족속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두번째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 수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말씀하셨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먼저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언약의 말씀을 발하셨고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수립하신 언약들을 최초에는 받아 들이고 그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가졌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언약들의 요구사항들을 자의적으로 실천하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부모와의 사이에 자동적으로 부모-자식의 관계에 들어가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창조주-피조물의 관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이 설정하신 계약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의 부모가 지극히 싫어서 부자간의 연을 끊자고 선언하고 부모에게 연락도 한번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채로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스스로 연을 끊었다고 해서 부모-자신간의 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그렇게 떠나 간 자식이 아직 가슴속에 있고 그를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수치와 욕을 당한 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런 죽음의 모습을 내려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셔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불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울 예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00 여년 전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처럼 정혼한 사이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혼인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의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일컬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창 2:3]”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보시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 2:24]”고 부부 간의 관계에 관하여 정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으므로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200 년간 살던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축복을 받는 대신에 사탄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택한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즉 구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 즉 신약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3 절]

이 신약에 관하여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를 살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레미아가 미리 예언한 신약의 선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분은 여러 설교를 통하여 이 신약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메시지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기를 싫어하여 자신에게 나중에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허비하고 빈 털털이가 되어 돼지치는 사람의 수하로 들어갔으나 너무 배고프고 고달퍼서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누렸던 훌륭한 처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청년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17-20]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19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20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죄에 빠진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부친과 자신의 사이에 있었던 부자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죄 속으로 자의적으로 뛰어 들어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하늘은 대적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의 십계명의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저버린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부친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로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친 집의 품꾼의 하나로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 탕자는 사실 부자간의 언약의 댓가인 상속 재산을 미리 요구하여 받아 이를 탕진하였으므로 더 이상 받을 상속이 없는 불쌍한 존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놀랄만한 조치들을 취하십니다.

[누가복음 15:20-24]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21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22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버지는 집을 저버리고 떠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지 매일 기다라고 계셨습니다. 죄속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간 아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심령으로 매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멀리 보이자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는 아들의 회개 고백이 있기 전에 표현됩니다. 아들의 회개의 고백이 있자 마자 아버지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를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시며, 그의 발에도 새 신을 신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집안이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은 죽음에서 회생되어 온 귀한 존재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명령하십니다.

이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의 반지를 손에 끼고 있었을 것이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결과로 헐벗게 되어 이 반지를 팔아 생계에 보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손가락에 그 반지가 없음을 아버지가 눈여겨 보았고, 새로운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아들은 아버지와 맺어진 부자 간의 상속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돈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 상속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비유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에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우리 몸에 가지고 태어 났습니다. 우리 몸을 유지해 주며 성장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과 전체가 이 지극히 소중한 창조주-피조물의 관계를 이야기 해주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아도 역시 그 관계들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봄이 되어 죽은 것처럼 매말랐던 나무 가지들에 잎파리들이 돌아나 매일 성장하면서 나무를 옷입혀 주위 환경의 색깔과 모습이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서 만물에 빛과 따스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28-30]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에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수 많은 들꽃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훌륭한 창조의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이 가졌던 그 커다란 영화보다 더욱 훌륭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축복의 훌륭함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 인생 후반에 영적으로 퇴락하여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솔로몬 왕의 물질적 영화의 값어치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산정하여 빌 게이츠의 재산만큼 컸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가치가 하나의 들꽃에게 부여하신 영광보다 낮은 천한 것이라는 매우 엄중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 들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제자들과 창조주 하나님 간에 맺어진 훌륭한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된 영광의 관계는 들꽃의 영광,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의 자리보다 훨씬 훌륭한 관계, 커다란 축복의 관계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삼게 된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가 새로운 반지를 손에 끼고 좋은 의복을 입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전혀 자격이 없었어도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축복의 자리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고아처럼 하나님의 집 밖에서 방황하거나 이 탕자처럼 인생을 허랑방탕하면서 허비하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기 권면합니다. 아멘!